

민주 새 대표 정청래 야당 향해 선전포고

“국민의힘과는 여야 개념 아니다
정당해산 심판, 국민 요구 높아질 것”
강공 드라이브, 여야대치 격화 예고
야당 “야당을 악마화, 우려 크다”



로 누르면서 합산 득표율 61.74%(박찬대 38.26%)로 압승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원 지지세가 의원 지지세를 꺾는 현

상은 이재명 체제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며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길이 뉴노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역풍을 타고 17대 국회에 입성한 정 대표는 줄곧 당내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대 총선 팬 컷오프(공천 탈락)됐지만 견고한 바닥 지지층을 발판 삼아 21대 국회 복귀에 성공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당 주류가 아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직후 현장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 여야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의) 사과와 반성 없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선 초반부터 “힘한, 곳은, 싸우는 일은 앞장서 솔선수범하겠다”며 스스로를 ‘당대표’라 칭해 온 정 대표의 당선은 민주당이 또 한번 ‘당원 중심 정당’임을 입증한 결과다. 정 대표는 의원들의 지지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대의원 투표에서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에 게 뒤졌지만, 권리당원 득표(66.48%)에서 박 의원(33.52%)을 더블 스코어 차

로 누르면서 합산 득표율 61.74%(박찬대 38.26%)로 압승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원 지지세가 의원 지지세를 꺾는 현

상은 이재명 체제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며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길이 뉴노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의 역풍을 타고 17대 국회에 입성한 정 대표는 줄곧 당내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대 총선 팬 컷오프(공천 탈락)됐지만 견고한 바닥 지지층을 발판 삼아 21대 국회 복귀에 성공했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당 주류가 아니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뜻이고,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3일 첫 일정으로 전남 나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1시간가량 봉사 활동에 매진했다.

심새롬·김나한 기자

saerom@joongang.co.kr

» 6면 ‘정청래’로 계속

한·미 동맹 키 ‘MASGA’…관건은 숙련공 확보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일명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한·미 동맹을 강화할 핵심 카드로 부상했다. 한국 조선업체가 쇠락한 미 조선업 재기를 돕고 K조선의 미국 진출 기회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조선업 숙련공을 미국에서 키워내야 한다. » 관계기사 5면

손흥민, 주장 완장 차고 ‘토트넘 고별전’ » 20면

경제 섹션입니다

무안 폭우…1년치 비 11%, 한시간에 퍼부었다



전국 곳곳 극한호우…한밤 주민 대피령 3일 전남 무안공항에 시간당 142.1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공항 지붕이 새고 무안을 복합 센터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날 무안군에 1년치 비(연평균 1290mm)의 11%가 단 1시간 만에 쏟아졌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무안과 함평에선 저지대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사진은 무안읍의 침수된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모습. » 관계기사 8면 [뉴스]

한·미 정상회담, 8월 넷째 주 유력

(25~29일)

조현 “막판 조율 중, 이달 안넘길 것”
다음주 성사 땀 약속회담 가능성

한·미 통상 협상 타결 이후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조율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3일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권에선 8월 넷째 주(25~29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회담 의제와 시점을 놓고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DC에

서 이날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을 넘기진 않을 텐데, 막판 조율을 하고 있어 날짜를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SNS에 “(한국의 투자) 금액은 향후 2주 이내(within the next two weeks)에 백악관에서 양자회담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늦어도 오는 12~14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란 전망이 나온 이유다. 그러나 다음 주 초반 주요 일정과 오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등이 열리는 게 일정 조율의 난제였다. 외교 소식통은 “8월 둘째 주 회담이 열리면 1박3일 약속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8월 셋째 주 한·미 연합훈련이 마무리될 때쯤 이 대통령이 방미하는 방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경우 미국에 충분히 머물며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 관계기사 10면

포스코그룹이 안전을 혁신하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연이어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포스코그룹은 안전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두고 다시는 이러한 후진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안전시스템을 원점에서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 회장 직속으로 외부 안전 전문가, 안전 예방의 주체인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그룹안전특별진단TF팀’을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개월 내 모든 사업장을 근로자 관점에서 점검해 위험 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하도급 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로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고 원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안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라는 신념으로 안전 예산은 ‘선(先)집행 후(後)보고’ 원칙으로 최우선 집행하겠습니다. 안전 전문 회사를 설립하여 안전 기술을 사회와 공유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K-Safety)’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안전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사명 의식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을 혁신하여 대한민국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안전문화 조성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포스코그룹 임직원 일동